

전통사상과 수입사상

진정한 세계화 정착돼야 '우리 식량·식생활' 지킬 수 있어
서민들의 '신분상승 욕구·경제적상승'이
'식생활 서구화' 소래

■ 장재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서구화(西歐化)되고 있다. 우리들이 섭취하는 열량이 서구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또 열량을 얻는 방법도 육류와 같은 동물성식품을 통해 얻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식생활의 변화는 전통에 대한 거부와 수입사상에 대한 맹종에서 비롯되고 있다.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서구사상과 우리 서민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염원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사상과 수입사상의 대립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이중구조(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서구에서 수입되어 이식된 제도와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장경제적 도시사회(都市社會)가 있고, 촌락공동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형성된 농촌사회(農村社會)가 있다. 이러한 이질적 구조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서구사상이 유입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오늘 우리사회는 이 두 사상(思想)이 서로 대립하면서 마찰과 갈등 속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世界化)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화에 휩쓸리지 못하면 시대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전통사상에 비해 서구사상이 우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화를 우리 것은 버리고 서양사상의 수용으로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우리의 사상과 문화는 낡고 고루하며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행동이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서구사상은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동물적인 인간본능의 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세계화 사상은 급속한 서구주의적 정책의 추진과 성급한 서구문화의 수입과 이식을 통하여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사상은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이라는 국가 목표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서구사상의 오류

최근 어린이들의 입에서는 <하우이유 투데이>가 거침없이 튀어 나온다. 도시 일부 학원의 이야기지만 그곳에서는 아예 어린이들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헨리니 부라운이니 하는 식으로 이름 자체를 아예 미국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컬러머리는 이제 부라운관의 여자 아나운서에게서도 느끼게 된다. 가정에서는 수저나 젓가락 대신 포크나 나이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피자나 햄버거를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이 화젯거리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 자존심의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大學)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소위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는 모든 교수들에게 영어로 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권(英語圈) 이외의 지역에서 유학한 교수들은 이제 대학을 물러나야 할 판이다. 세계의 대학이라고 동경하는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에 가보라. 수천여 대학교 가운데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수가 몇

이나 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서보면 진정한 세계화가 무엇이며, 또 세계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식량과 식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년센스지 진실은 아니다. 우리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신분상승에 대한 염원

우리나라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사회에도 승려, 귀족, 시민, 농노와 같은 신분이 있었다. 신분은 개인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신분에 의해 인간의 지위가 결정되고 서열이 결정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지배, 피지배 관계가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두 신분사이에는 단절(斷絶)과 복종(服從)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얻고 남으로 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일정한 신분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인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운명적인 것이었다. 특히 이조사회(李朝社會)에서는 정치권력에 의해 신분이 고정되고 세습화되어 신분의 이동이나 상승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지배계층의 구성은 매우 소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입신출세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전통사상의 후퇴와 시

민혁명(市民革命)은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전통에 대한 반역(反逆)과 강력한 인권의식을 탄생시키게 된다. 특히 교육제도의 발전은 고등교육만 받으면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학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많은 젊은이들이 출세를 위해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특히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국가 생산력을 한 계단 높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1769년 와트(J.Watt)에 의해 발명된 증기기관(蒸氣機

關)은 영국의 제철공업과 제강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면서 운수업과 해상수송업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해외무역을 중심으로 상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공업과 상업의 위치를 한층 강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농공상의 서열이 생산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경제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은 사농공상의 서열을 사상공농(士商工農)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엘리트 코스의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다. 소수만을 고집하는 지배계급은 그들의 특권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 수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출세할 수는 없었다. 대학만을 나오는 것으로 출세를 보장받던 시절이 지나간 것이다. 이와 같은 소수 엘리트 계층의 특권의식과 자기계층만을 보호하려는 이기심은 각종 고시제도

(考試制度)를 만들어 지극히 일부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다. 고시에 합격해야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司法)시험이나 행정(行政)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제한된 소수그룹에 진입한다는 것은 출세를 지향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사회의 발전은 국민들에게 의식주의 해결과 부(富)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을 부유해진 경제적 소비로 풀어보려는 분위기를 팽배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 계층의 소비행태(消費行態)를 생산력의 향상으로 부유해진 서민

층이 흉내냄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면서 자신이 마치 신분상승이 된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 분위기는 엘리트 계층의 서구화, 특히 식생활의 서구화를 중산층이나 서민 계층에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지배자로서의 격상을 바라는 서민들의 신분상승(身分上昇)에 대한 욕구가 소수 지배계층의 특권의식을 보호하려는 의식 속에서 서민계층의 경제적 상승과 맞물려 대량소비를 유도하면서 서구화에 물든 엘리트 계층의 소비행태를 흉내낸 결과가 식생활의 서구화를 초래한 것이다. **농약정보**